태생이 게으르고 입은 아둔하며 머리로는 하나만을 집념하기엔 미련한 사람이라. 스스로 걷는 법을 모르고 알랑거리는 데는 성미가 없다. 늘 마음이 곤하여 침묵하는 주제에 남의 언행에 눈을 흘기기는 곧 잘한다. 술은 입에 안 맞다하고 파이프도 건강과 상관없이 물지 않는 터에 이래저래 사람만나길 피곤해 하는 지라 취미생활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다.

텅 비어있진 않으나 텅 비어있는 듯해 보이는 스스로의 삶에도 실은 무료하지 않다. 의자에 앉아 사색에 잠기는 지금 때만은 분명한 즐거움이라. 하루에 있었던 일, 아니면 내일 있을 일, 그도 아니라면 허황된 무엇이라도 지나가는 시간에 재료가 된다.

영혼의 자리에서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는다. 하나의 흐름을 타고 수면 아래로 깊이 내려간다. 영혼은 어둠속 품에 안겨 유영한다. 이윽고 빛을 발견하면 그 품에서 빠져나와 물살을 가르고 차가운 심연 넘어 앞으로 내지른 손에 광원이 잡히는 순간. 자신이 정점위에 서있음을 깨닫고 영혼이 돌아와 육체의 손끝을 까닥여 주면 마침내 두 눈에 주변이 들어오는 일이며, 힘껏 쳐댄 인지의 종소리가 울림까지 천천히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여름의 습한 공기 속, 상쾌함이 찾아와 눅진거리는 표피를 걷어냈다. 여름을 이보다 시원하게 보낼 수는 없으리라.

깃펜을 뽑아들어 잉크를 가볍게 찍었다. 내용은 오늘의 날짜와 날씨부터 시작한다. 글의 주체는 자신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그의 영혼은